

Awana Leader



어와나 리더

장충교회 황종연 전도사

A full of gales of children's cheers in the gym!
A Serious and graceful faces of the children memorizing His Words! It seems contrary to each other however this is the exact image when I think of 'Awana'.

These days, the children who I met in Awana says hello to me and greeting me gladly first. As seeing and observing the children become more active and self-initiative, I feel proud of them in a part of my heart. As one of closing words of 'Closing' which was hot TV show in the past, it seems like that our children become to do their best for the victory and to accept their defeats.

Do their best within the fixed rules and also enjoy the freedom look as if we enjoy genuine freedom in God with being obedient to his words. We come down and back to calm condition while reading his words from aroused feeling from the game and competition. The children feel proud of themselves by counting the number of badges and stickers on their uniforms.

However, one day our children should realize that that is not everything and not only the end. All the words they have been memorized so far would hold them tight in the middle of affliction; furthermore, it would be a driving force to be much closer to God.

As community strengthens their unity with common shared memories, the memories that we shared with at this moment would cement more solid and sturdy not only our church but also his world in this land. And our God would also be pleased by seeing us being filled our heart with his words.

Bring it on!! There are my friends admiring God and listening his words!!

I can not tell you how much I am pleased that I am serving Awana as a ministry. It is my big pleasure and worth to watching the changes in the children through the bible. I hope many other teachers get a new fresh moving power from these beautiful children in these missionary works.

어와나를 통해 만난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아는 척을 하며 반갑게 인사를 한다.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점차 주도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켠에 뿌듯함이 솟아 오른다. 과거 한창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의 클로징 멘트처럼 우리 친구들도 점차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모습,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과 흡사하게 보인다. 경쟁을 통해 달아 올랐던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을 찾는다. 유니폼에 표식과 스티커가 늘어날수록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면서 대견스러워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 친구들을 알 것이다. 지금 외웠던 그 말씀들이 흔들리는 자신을 잡아주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한발 더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공동체는 공동의 기억으로 더 단단해지듯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추억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라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부심을 느끼실 것이다.

다 덤벼! 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단 말이다!!

사역자로 어와나를 섬기고 있다는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것은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가길 소망합니다.

